

# 5·18민주화운동 주체, 젊은 영령의 넋을 기리다

## ‘소년은 언제나 우리 곁에’ 전시

윤상원기념관에서 5월31일까지 무명열사 등 희생자 20명 소개 각종 기록물·사진 등 공간 채워 윤 열사 기리는 상설전시실 ‘눈길’ 13일 연계 체험프로그램 진행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유와 민주주의를 억압했던 독재 세력에 맞서 생명을 바친 젊은 영령들의 넋을 기리는 공간이 마련됐다.

오는 5월31일까지 광주 광산구 윤상원기념관에서 열리는 기획전시회 ‘소년은 언제나 우리 곁에’는 오월광주에서 유명을 달리던 10대 청소년들의 민주정신을 되새기는 자리다.

이번 전시회는 윤상원기념관과 5·18기념재단이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기념해 기획했다. 한국 문학계의 경사는 1980년 5월18일부터 열흘간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과 그 이후 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다. 5·18을 소재로 한 한강 작가의 소설 ‘소년이 온다’의 주인공 열다섯살 동호처럼 당시 희생된 광주 청소년들을 기억하기 위해 전시회를 마련한 것이다.

지난 9일 찾은 윤상원기념관을 처절했던 오월광주의 현장에서 희생된 10대 청

소년들의 용기와 헌신을 추모하는 전시물로 가득했다.

1층 기획전시실에는 1980년 5월 당시 광주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녔던 희생자 18명과 오늘날까지도 시신을 찾지 못한 행방불명자 임옥환(당시 조선대부속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사진을 비롯해 신원을 확인하지 못한 무명열사를 소개하는 기록물이 관람객을 맞이한다. 또한 소설 ‘소년이 온다’에 수록된 명대사들이 벽면에 자리 잡았고 이와 함께 윤상원 열사의 각종 기록도 함께 읽어볼 수 있다.

이 밖에도 ‘소년이 온다’에서 동호의 모티브가 된 문재학 열사, 청소년 희생자인 박현숙 열사의 캐릭터와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 부스가 자리하며 벽면에 설치된 스크린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의 실황을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된다. 북도 공간을 차지하는 어린이 관람객들을 위한 ‘어린이 녹두서집’, ‘무지개 문방구’ 부스 등도 눈길을 끈다.

이번 전시가 더욱 뜻깊은 기획으로 다가오는 건 실제 5·18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청소년의 수가 막대했기 때문이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종합보고서’에 따르면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 사이에 광주와 인근 지역(전남·전북)에서 사망한 민간인은 166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20대가 64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10대가 58명



지난 9일 광주 광산구 윤상원기념관을 찾은 관람객들이 2층 상설전시실에서 윤상원 열사의 연대기를 감상하고 있다.

(34.9%)으로 그 뒤를 이었다.

5·18민주화운동에서 10대 청소년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항쟁에 참여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생산·서비스직 등에서 일찍이 직업 활동을 시작한 노동자들도 있었다. 이들은 신군부가 언론 보도 검열·통제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매도하자 ‘민주시민회보’, ‘투사회보’를 만들어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해 맞섰다.

광주의 청소년들은 1980년 5월14~16일 평화롭게 ‘민족민주화성회’에 참여했지만, 5월20일 광주 시내 전 학교에 휴교

령이 내려지자, 본격적으로 시위 현장에 합류하기로 결심한다. 1980년 5월27일 새벽, 신군부의 전남도청 진압이 예고된 상황에서 상당수의 청소년이 죽음을 각오하고 최후 항전에 참여했다.

이러한 과정을 되짚으면 어린 나이에 불의에 항거한 10대 청소년들이 결국 5·18민주화운동의 주체였다는 게 결코 과한 해석은 아니라는 것이 윤상원기념관 측의 설명이다.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것인지 짐짓 밤을 새운 적도 있습니다. 내년에 복학을 하면 어려운 현실과

싸울 작정입니다.”

윤상원기념관의 한편에는 1974년 군복 무당시 윤 열사가 그의 부친에게 보낸 편지의 글귀가 새겨져 있다.

윤 열사가 품었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한 열망은 1980년 5월27일 새벽 최후 항전 때 옛 전남도청 회의실에서 숨을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않았다.

윤상원기념관 2층 상설전시실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민주화운동가 윤 열사의 삶과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다. 그가 1960~1979년 써낸 총 11권의 일기 사본, 그의 생애를 소개하는 연대기가 공간을 가득 메우며 한쪽에 자리한 영상실에서는 윤 열사와 박기순 열사의 만남을 샌드아트로 구현한 추모영상, 윤상원기념관의 건립 과정을 소개하는 영상 기록물 등이 상영된다.

한편 윤상원기념관은 이번 전시와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13일 오전 11시에 개최할 예정이다.

윤상원기념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10대 청소년들의 활동과 1980년 5월 광주에서 희생된 초·중·고등학생 열사들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며 “겨울방학 기간을 맞아 전시회와 연계한 체험프로그램도 준비했다. 많은 관람객이 찾아 80년 5월의 청소년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찬기**



## “기자를 꿈꾸는 청소년들 모이세요” ‘청소년이 만드는 뉴스’ 참여자 모집

삶디·KBS광주방송 협력 청소년 시선으로 뉴스 제작 17~20세... 12일까지 모집 'KBS뉴스 광주전남' 월 1회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삶디)는 KBS광주방송과 협력해 청소년의 시선으로 사회적 이슈를 재조명한 뉴스 제작 프로젝트 ‘청소년이 만드는 뉴스’에 참여할 17~20세 청소년을 12일까지 모집한다.

참여자는 오는 22일부터 12월 13일까지 뉴스를 제작하게 된다. 기획부터 취재, 촬영, 편집까지 청소년이 취재자가 돼 공중파에 메시지를 발신한다. 참여자는 저널리즘 역할을 체득하고 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경험할 수 있다.

‘청소년이 만드는 뉴스’는 지난해 9월 시작해 이미 2건의 뉴스를 ‘광주KBS 뉴스7’에 방영한 바 있다. 올해도 다음달부터 매월 1회

씩 ‘KBS뉴스 광주전남’에 방영될 예정이다.

참여자들에게는 뉴스 제작 외에도 KBS광주 방송국 견학, 뉴스 제작에 대한 현직 기자의 전문적인 피드백, 취재 활동 경험을 담은 포트폴리오 제작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지난해 참여자 김시연(19·중앙여고)씨는 “뉴스를 만들 때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는지 알게 됐고 스스로 고민하고 분석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도 발견했다”며 “기자라는 직업을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이는 오는 12일까지 신청 페이지(bit.ly/청뉴)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samdi.or.kr)에서 확인하거나 삶디(070-4173-0181) 또는 카카오톡(삶디청뉴)으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

##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광주서 공연

‘2025 ACC 퍼니’ 첫 무대 4월 ACC 예술극장 극장2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대중 친화적 공연 브랜드 ‘2025 ACC 퍼니’의 첫 무대로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를 오는 4월11~12일 ACC 예술극장 극장2에서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는 2023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올해의 신작’으로 선정돼 초연 2주 만에 매진된 화제의 뮤지컬이다. 초연 직후 평단과 언론의 호평을 받으며 전국 11개 CGV 영화관 실황상영과 네이버 실황 생중계를 2회 진행한 바 있다. 또 ‘K뮤지컬 In 런던’에 선정돼 영국 런던 쇼케이스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해외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이 작품은 ‘성격장애’를 겪는 주인공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에 한 발짝 내딛는 과정을 다룬 공연이다. 주인공 키키는 경계성 인격장애를 인지한 뒤 자신의 병을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ACC재단)은 ‘2025 ACC 퍼니’의 첫 무대로 오는 4월11~12일 뮤지컬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를 ACC 예술극장 극장2 무대에 올린다. **ACC재단 제공**

다루는 방법을 하나씩 배워나간다.

이번 뮤지컬은 현대인들 다수가 겪고 있지만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는 성격장애를 무겁지 않은 토크쇼로 풀어내 청소년은 물론 성인들에게도 위로와 공감의 시간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키키의 경계성 인격장애 다이어리’ 공

연은 4월11일 오후 7시 30분, 4월12일 오후 2시와 6시 등 총 3회 진행된다. 관람료는 R석 5만원, S석 3만원이며 예매는 ACC재단 누리집(www.accf.or.kr)을 통해 할 수 있다. 문화패스(7세~24세) 대상인 청소년은 50% 할인된다.

**박찬기**

## 광주 일곡청소년문화의집, ‘꿈여울 문화 DAY~!’ 성료

매년 4회·청소년 주도 체험 활동 롤러스케이트 체험·영화 관람 등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한 뜻깊은 문화 경험으로 구성된 주말체험 활동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10일 광주 일곡청소년문화의집에 따르면 꿈여울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꿈여울)가 지난 8일 청소년 26명을 대상으로 ‘꿈여울 문화 DAY~!’ 주말체험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활동에 참여한 청소년들

은 자치회에서 직접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 다양한 문화체험을 경험했다.

체험 활동은 일곡청소년문화의집에서 안전교육을 마친 뒤 롤러스케이트 체험, 직접 선택한 영화 관람 등으로 진행됐다.

꿈여울은 매년 4회 진행되는 주말체험 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현장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5월에는 역사탐방을 주제로 청소년들과 자치회의를 통해 프로그램을 기획할 예정이다. 한편 꿈여울은 여성가족부와 광주시의

지원을 받아 지역 내 방과후 활동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체험활동, 학습지원, 급식, 상담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정책 사업이다. 현재 초등학교 4학년 부터 6학년까지 청소년을 모집하고 있으며, 10월부터는 초등학교 3학년 청소년도 모집할 예정이다.

꿈여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곡청소년문화의집 홈페이지(www.ilgokycc.kr)나 꿈여울방과후아카데미(062-575-0914)로 문의하면 된다. **박찬기**